

“20분 안에 전동 킥보드 안 치우면 견인합니다”

남구, 지자체 첫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현장 동행

스쿨존 '20분'·일반 상가 앞 '1시간'...민원 땀 '즉각 견인' 업체통보 뒤 조치 없으면 견인·보관료 징수...방치 확 줄여 남구, 백운광장·효천역 앞 등 20곳에 환승 주차구역 계획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20분 안에 치우지 않으면 견인합니다.”

광주시 남구 교통지도과 소속 '개인이동형 장치(PM)전담반'이 23일 오후 2시 30분 남구 진월동 진월초 도로에 무단으로 세워진 전동킥보드를 광주시 전동킥보드 민원신고 시스템에 등록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PM(Personal Mobility) 업체 화물차가 현장에 도착해 전동킥보드를 수거해 갔다.

남구가 전담반(4명)을 꾸려 광주 5개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로와 인도에 방치돼 보행자를 위협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PM을 강제로 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남구가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남구내에서 견인 조치한 PM은 총 41대로 민간 PM업체에 부과된 견인료는 61만 5000원에 달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주행차로 등 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주차된 PM의 경우 20분의 유예시간이 주어진다.

건물 입구나 상가 앞 등 일반도로에 세워져 보행과 교통에 불편을 주는 PM은 1시간의 유예시간이 부과된 뒤 견인이 진행된다. 민원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유예 시간 없이 바로 견인이 가능하다.

견인이 되면 PM업체에는 한 대당 견인요금 1만 5000원이 부과된다. 견인된 PM보관료는 30분 당 700원이다.

남구가 민간업체인 PM업체 제품을 견인하는 근거는 지난 2022년 개정된 '광주시 자동차 견인조례'다. 조례가 마련되기 2년이 남았지만, 실제 견인 전담팀을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는 없었다는 것이 남구의 설명이다.

남구가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초강수를 내 놓은 배경에는 보행자 안전이 깔려있다. 전동킥보드가 인도와 도로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채 관리가 되지 않자 보니, 안전사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이기 때문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동행한 남구 PM전담반은 23일 오후 남구 내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며 불법주차된 PM을 색출했다.

이날 남구 진월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발견한 단속반원 송민우(40)씨는 우선 휴대전화로 방치된 킥보드를 촬영했다. 이후 '전동킥보드 불법주차자를 신고하는 광주시 전동킥보드 민원신고 시스템'에 전동킥보드의 기기 번호와 색상, 주차자 위치 유형을 등록했다.

송씨는 “그동안 시스템에 신고를 해봤자 업체측이 수거에 나서지 않았지만, 최근 남구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업체측의 대응이 빨라졌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나타난 PM업체 수거담당 한국인(29)씨는 “업체에서 남구는 유명하다. ‘진짜 견인해간다’는 소문이 돌면서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은 “그동안 사업 확장에만 관심을 쏟을 뿐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외면하던 업체가 자초한 일”이라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안전문제에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남구 역시 처음 견인조치를 단행할 땐 우려가 많았지만, 남구가 민간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초강수를 내 놓은 배경에는 보행자 안전이 깔려있다.

김준성(31) 주무관은 “불법주차 단속 인원이 PM까지 추가로 맡다보니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도 있고, PM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걱정도



23일 오후 남구 '개인이동형 장치 전담반' 직원이 진월동 어린이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단속하기 위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많았다”면서도 “남구엔 주거지역이 많아 어디선가 타고 주차해놓은 PM이 많았는데, 학생과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사고 우려가 높아 견인조치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한 달 더 나아가 남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PM 주차가 많은 곳과 이용자가 밀집한 장소를 파악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백운광

장고 효천역 앞 등 20곳에 PM 환승 주차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승 주차구역엔 PM주차 표지판과 함께 노면 주차선도 표시된다.

한편, 남구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민원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PM불법주차자는 2023년 769건, 2024년 6월까지 683건에 달한다.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한빛원전 수명연장 공청회 6곳 사실상 모두 무산

한수원 “지자체와 다시 협의할 것”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의 법적 절차인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6곳(영광·함평·장성·무안·부안·고창)의 주민공청회가 사실상 모두 무산됐다.

지난달 12일 지진이 발생한 부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지자체에서 주민-환경단체 반발과 지자체의 대관 불허 등의 이유로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못한 것이다.

23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날 오후 2시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계획이었던 장성 주민공청회가 사업자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장성군이 입장을 반복해 장소대관을 취소해 공청회가 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성군은 앞서 2차례 한국수력원자력에 주민공청회 일정 연기 공문을 보냈으나 별다른 답을 받지 못해 주민공청회 하루 전인 지난 22일 한수원의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영광과 고창(15일)에서는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주민공청회가 무산됐다.

또 함평(19일), 무안(22일)에 이어 장성에서는 지자체가 주민공청회 장소대관을 취소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부안군은 지진 발생 등을 이유로 주민공청회가 연기됐다. 부안군은 “한수원과 일정을 조율 중에 있지만 지난 22일 함평군이 광주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주민공청회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자체들이 한수원의 요청에도 장소대관을 취소하면서 주민공청회 개최를 막고 있는데에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주민공청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다시 지자체들과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애인단체 “광주시, 장애인 평생 교육 예산 확대를”

광주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광주시에 장애인 자립을 위한 평생 교육에 대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학협회는 광주시청 앞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열고 “광주시는 장애인 평생 교육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2024년 광주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예산은 1억여원으로 전국 최하위”라며 “광주시 소재 5개 시설에 1억여원만 지원되는데다 이마저도 수년째 동결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또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장애인 교육 예산은 4억여원에 비해서도 4분의 1수준”이라며 “광주시는 ‘교육은 교육청의 책임’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학령기 이후에도 장애인들은 교육으로

부터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광주시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규탄했다.

배영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장애인들도 교육받고, 일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 광주시가 장애인 정책에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제발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전국 장애인의 55.7%가 중졸 이하의 학력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보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구속된 23일 카카오 그룹 주가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카카오는 전날보다 2200원(-5.36%) 내린 3만8850원으로 하락 마감했다. 카카오페이(-7.81%), 카카오게임즈(-5.38%), 카카오뱅크(-3.79%), SM C&C(-3.25%) 등 계열사 주가도 급락했다. /연합뉴스

고향 선배 살해 후 시신 유기 50대 징역 16년

고향 선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3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고흥군 봉래면에서 고향 선배인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공터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에 버려 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술자리를 하다 범행을 저질렀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생명의 가치는 존엄하고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A씨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족이 A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할 손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주세요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 암 박 산 지 점 062)529-5335~6	동 름 아 나 로 지 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름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 곽 무 드 (시 정)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 덕 아 나 로 마 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동 름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